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BS 사보

2021년 7월 5일 월요일
Vol. 722



제987차 정기이사회

KBS 이사회, 수신료조정안 의결

수신료 월 3,800원안 방통위 제출

KBS 수신료조정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어 월 2,500원의 수신료 금액을 월 3,800원으로 올리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사진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수신료조정안에 대한 종합 심의와 토론 끝에,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표결로 수신료조정안을 통과시켰다.

KBS 이사회는 의결 후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41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 제도의 정상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로서 공영방송의 필요성, 공신력 있는 제대로 된 방송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KBS가 불편부당한 방송,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내주신 귀중한 수신료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KBS의 경영 혁신에 대한 감시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동 사장은 이사회 발언을 통해 "지난 5월의 공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개방, 신뢰, 안전, 품질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KBS가 큰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 의결을 마치며 김상근 KBS 이사장은 "우리의 공영방송의 꿈,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 그것은 지속되어야 하고 또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면서도 의결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여야간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밝혔다.

KBS는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조정안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내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KBS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수신료조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게 된다.

▶ 왜 3,800원인가?

이번 수신료 인상은 공영미디어로서 시청자가 요구하는 공적책무와 역할을 확대하고, 왜곡된 공사의 재원구조를 수신료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월 3,800원은 국민 참여 공론조사를 통해 추려진 37개의 공적책무확대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외부 회계법인에서 검증한 향후 5년간의 공사 수지전망을 토대로 도출되었다.

금액의 산출에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견지되었고, 이를 위해 인건비 감축, 예산 절감, 부가수입 확대 등 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선제적으로 반영되었다.

이사회는 총 28차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당초 상정된 월 3,840원을 낮춰 월 3,8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 수신료가 인상되면 재원구조는 어떻게 바뀌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의 1년 수신료 수입은 2020년 결산 기준 6,790억 원에서 10,848억 원으로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7.3% 수준에서 58%로 10%p 이상 높아진다.

그렇지만 외국의 공영방송과 비교하면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75%, 일본 98%, 독일 87%, 프랑스는 82%에 달한다. 그러나 공적재원인 수신료가 전체 재원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수신료가 차지하는 재원의 비중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신료 비중의 확대에 따라 광고의 비중은 2020년 결산기준 16.1%에서 12.6%로, 기타수입은 36.6%에서 29.4%로 낮아진다.

수신료조정안 주요 추진 경과

– 수신료조정안 성안 및 이사회 심의 과정 –

- 2019. 6.20. :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 출범
- 2020. 1.31. :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 도출
- 2020. 7.24. : KBS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 신설
- 2020. 8.14. : 공적책무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 2020. 9. 1. : KBS시청자포럼 개최
- 2020. 9. 4. : 공영성강화 추진위원회 구성
- 2021. 1.21. : 수신료조정안 경영회의 의결
- 2021. 1.27. : 수신료조정안(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이사회 상정
- 2021. 2.17. : 국민의견수렴(공론화) 방안 및 소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이사 간담회
- 2021. 2.23.~3.24. : 공론화 소위원회 개최(1차~5차)
- 2021. 3.31.~6.23. : 수신료조정안 이사회 심의(1차~10차)
- 2021. 4.28. : 수신료조정안 공청회
- 2021. 5.22. : 2021 KBS 공론조사
- 2021. 5.27. : 일반국민·전문가 여론조사
- 2021. 6.30. : 수신료조정안 이사회 심의(11차), 수신료조정안 수정 의결



수신료조정안 의결 기자회견

KBS의 수신료조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일 오후 2시,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렸다. 김상근 KBS 이사장과 양승동 사장, 임병걸 부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 일간지와 온라인 매체, 방송사 등에서 온 60여 명의 취재진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김상근 KBS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 이사회가 수신료조정안을 의결한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의 재정상황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구노력도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우리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공영성 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사회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조정안을 상정했을 때 처음에는 KBS 이사회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국민참여형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공감을 더 해주셨다"며, "수신료를 올리면 당장 무엇이 바뀌냐는 질문이 있는데 당장 모든 게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시청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어 "코로나19를 비롯해 다양한 재난재해를 겪으면서 공영방송의 공적정보 전달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거대 상업미디어의 확장 속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등 공적가치가 위협받는 상황도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에 이르는 지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시청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임병걸 KBS 부사장은 수신료조정안 의결 경과와 주요 내용, 새로운 KBS의 비전인 「공영방송 50년, 국민의 KBS로 거듭나겠습니다」의 세부 항목 그리고 강도 높은 조직과 경영 혁신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미디어·사회 환경에서 공적책무사업 수행을 위한 '개방, 신뢰, 안전, 품질, 다양성'의 5대 핵심비전과 8대 과제 그리고 37개 세부 실행과제가 담긴 공적책무확대 계획을 통해 수신료 인상 이후 KBS의 향후 사업과 수지 전망 등을 취재진들에게 상세히 알렸다.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는 수신료조정안 이사회 의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주요 질의와 답변은 다음과 같다.

Q&A

Q 연합뉴스 : 과거 세 차례 수신료 인상을 전임 사장들이 추진했다. 수신료 인상 추진이 임기 연임을 위한 수단이라고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전임 사장들의 추진과 차별점은?

A 양승동 사장 : 과거 세 차례 상정안과 달리 이번 추진과정에서는 시청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신료 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이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고 한다.

Q 한국일보 : KBS 이사진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20여 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번 의결을 이뤄냈다고 했는데,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A 김상근 이사장 : 그동안 KBS가 수신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평가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기본자세를 갖춰야겠다고 느꼈다. 그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구성원들이 갖게 됐으리라 본다. KBS가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미디어스 : 수신료 회계분리 요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설명해 달라.

A 임병걸 부사장 : 인력, 시설, 장비 모두 통합관리 중이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의 판단, 연구기관 등 KBS는 현재 법 체계로는 적절치 않다. 국회나 이사회 예·결산, 감사 등 회계를 다양한 측면으로 공개하고 있다.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듣고 콘텐츠 평가 시스템, 장르별 비용 공개 등 투명성을 더욱 높이려고 한다. KBS의 회계는 매우 투명하다. 더욱 투명성을 높이겠다.

양승동 사장은 맺음말에서 "지난 2년 동안 마라톤 같은 수신료 조정을 포함한 공적책무 프로젝트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KBS의 저력을 바탕으로 달라진 KBS,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KBS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KOREA〉 오픈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KBS 한국어 채널 〈KBS KOREA〉가 지난 1일 새롭게 단장했다. 〈KBS KOREA〉는 기존 〈KBS WORLD 24〉를 전면 개편하고 이름을 바꾼 채널이다. KBS의 주요 뉴스와 프로그램을 한국과 동일한 시간에 방송하고, 750만 해외동포에게 고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KBS KOREA〉에서는 뉴스는 물론 〈가요무대〉, 〈아침마당〉, 〈6시 내고향〉, 〈한국인의 밥상〉, 〈다큐 인사이트〉 등 KBS의 간판 프로그램을 한국과 동일한 시간에 방송하고, 외국에서 출생한 후속세대를 위해 어린이·한국어·역사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했다.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전 세계에서 위성, IPTV, OTT, 유튜브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KBS KOREA〉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한류 채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KBS의 공적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양승동 사장, ABU 회원사와 'KBS의 재정 안정 노력' 공유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안정시키고 공적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KBS의 다양한 방안을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ABU(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회원사들과 공유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 ABU 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양승동 사장은 "공영방송사가 어려운 시기에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U 부회장인 양승동 사장은 이번 온라인 이사회에서 KBS가 겪고 있는 변화와 혁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및 디지털 콘텐츠 도달률 강화, 보직자 감축을 포함한 조직개편 등 KBS 내부의 다양한 자구노력을 이사회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수신료조정안 주요 내용

2021년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범한 지 48년이 되는 해다. 2023년이 되면 50년의 역사를 갖게 되고, 2027년이면 '대한민국 방송 100년'의 역사가 형성된다.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바람직한 KBS의 미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KBS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신료조정안에 담은 KBS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안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KBS 비전

비전 1 본격적인 시청자주권 시대를 엽니다.

■ **시청자가 만들고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
- 시청자 공모 방식의 '국민공모 콘텐츠' 제작방식 도입
- 공동체가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회공동 제작단' 운영
-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 개방형 아카이브' 운영

■ **시청자 소통과 참여 확대**
- '공적책무 실행 국민평가단' 운영
- '시청자 참여예산제' 도입
-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1020 시청자위원회' 운영

■ **경영정보 공개와 설명책임 강화**
- KBS 메인 홈페이지 대개편
- 수신료 수입과 결산·회계 정보 등 공개범위 확대
- 콘텐츠 평가와 제작 이력 공개 시스템 마련

비전 2 공정·신뢰의 KBS 뉴스를 확립합니다.

■ **'KBS 공정성 강화 프로젝트' 추진**
- 시청자위원회 'KBS 저널리즘 강화 특별 소위' 운영
- KBS 뉴스 기사의 출처와 근거 공개 제도화

■ **'팩트체크K' 센터 운영**
- 데이터 기반, 외부 전문가 협업 방식의 정교한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 **'공영방송과 저널리즘' 교육 강화**
- 보도 종사자를 비롯한 전 직원 연수 커리큘럼 이수 의무화 및 인사평가 반영

비전 3 재난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 **국가 재난정보의 허브 구축, 모든 미디어와 공유**
- 대한민국 모든 재난 데이터를 통합, 전국적 재난안전망 구축
- KBS 재난대응매뉴얼 정비

■ **'24시간, 지역 거점형, 시청자 참여형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재난정보 스트리밍채널 'KBS 뉴스 D-라이브' 서비스
- 지역 거점형, 시청자 참여형 재난방송 구현

■ **'완결형, 미래대비형 재난방송'으로 진화**
- 재난 예방-대비-대응-회복의 '완결형 재난방송 모델' 구축
- '미래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담조직 신설 및 의제 선도

비전 4 공영방송만의 고품격, 디지털, 글로벌 콘텐츠로 차별화합니다.

■ **공영방송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에 집중**
- 〈차마고도〉를 잇는 고품격 프리미엄 다큐멘터리 제작, 편성 확대
- '정통 대하 역사드라마' 고품격 콘텐츠로 부활
-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류의 국민 감동 공연 매년 편성
- 시사·토론 프로그램 전면 리뉴얼로 '사회적 공론장' 역할 강화
- 다양한 포맷의 인문, 역사, 과학 등 지식정보형 고품질 콘텐츠 특화
- 시청자가 기획, 참여하는 콘텐츠 공모제 운영

■ **방송을 넘어 공익적 디지털 콘텐츠 확대**
-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
- 시대 변화,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 확대

■ **글로벌 진출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업 확대**
- 공영방송 콘텐츠의 도달률 확대 전략

비전 5 지역 분권과 사회 공동체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 **제작의 분권화로 지역방송 강화**
- 장르별·프로그램별 제작기지 다변화
- 예산과 인력 리소스 대폭 확충
- 지역 자체 제작 콘텐츠 연간 280편 이상 제작·편성
- '지역밀착형 1인 취재센터' 신설(20개)

■ **실버 세대, 다문화,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확대**
- 실버세대, 다문화가족, 장애인을 위한 '3대 공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장애인과 소수자 등을 위한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 구현
- 다문화 가정,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자막방송 확대
- 다문화 청소년과 건전한 학교문화를 위한 소통 콘텐츠 제작

■ **공적재원의 가치를 확대, 미디어 다양성·공익성 제고**
- 광고 수익 배분
- 수신료 배분

새로운 KBS를 위한 조직과 경영 혁신안

혁신안 1 조직쇄신 – 조직을 재설계하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직종별, 본부별, 장르별 조직 원점에서 재설계**
- 탈직종, 탈본부, 탈장르 → 융합형·기능형 조직 재구성
- 조직, 편성, 제작, 예산 시스템을 '멀티플랫포밍'체제로 전환
- 신규 채용 인력의 1/3을 디지털 전문가로 충원

■ **고호봉, 고연령, 연공서열형 인력구조 개선**
- 고연령, 고호봉 인력 1,440명 감축(특별명예퇴직 병행)
- 수신료 인상 시, 미래방송 인재 700명 추가 채용 추진
- 완전 경쟁형 평가제도 도입(연공서열제 → 직무·성과급제로 전환)
- 임원 및 국장(총국장 포함) 직위 개방 확대, 조직 기능 쇄신

■ **KBS 그룹 토털리뷰를 통한 계열사 통폐합 추진**
- 콘텐츠 계열사 경쟁력 강화(OTT 등 협력 목표)
- 콘텐츠 IP 확보 및 시장보급형 콘텐츠 제작·유통에 특화된 스튜디오형 조직

■ **본사 세종시 이전 추진 → 분권형 지역방송 체제 구축**
- 입법과 행정 주요 기능 세종시 이전과 연계, 본사 기능의 이전 추진
- 본사(세종) + 10개 총국 + 10개 지역국 체제

혁신안 2 자구노력 – 선제적 비용절감과 수입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력 감축 및 효율화**
- 2026년까지 총인원 920명 단계적 감축
- 특별명예퇴직 실시, 직무재설계를 통한 인력운영 효율성 강화

■ **초긴축 예산 운영을 통한 경비 절감**
- 예산 초긴축 수립을 통한 비용 규모 억제
- 향후 5개년 비용 규모 → 최근 5년간 평균 수준 유지

■ **콘텐츠 수입 확대**
- OTT 등 디지털 영역의 판매 전략 강화책 마련으로 콘텐츠 판매 수입 확대

■ **유휴자산 매각**
- 2026년까지 폐소된 송·중계소 등 부동산 매각

KBS의 새로운 비전 구현을 위한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

KBS가 공영미디어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원구조 개선을 통한 KBS의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을 설정했다. '개방, 신뢰, 안전, 품질, 다양성'의 5대 핵심비전과 8대 과제 그리고 37개 사업은 KBS 이사회와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새로운 미디어·사회 환경에서 요구되는 공적책무 사업수행을 위해 향후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 총괄〉 (단위 : 억 원)

핵심비전	과 제	사업개수	소요예산(2022~2026년 누적)	
❶ 개방	과제 ①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3	1,748억	
❷ 신뢰	과제 ② :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현	5	265억	
❸ 안전	과제 ③ :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4	1,111억	
❹ 품질	과제 ④ : 고품격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6	4,450억	9,583억
	과제 ⑤ :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3	2,471억	
	과제 ⑥ :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	4	2,662억	
❺ 다양성	과제 ⑦ :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6	1,755억	6,308억
	과제 ⑧ :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6	4,553억	
5대 비전	8대 과제	37개 사업	19,015억	



신개념 글로벌 요리 토크쇼 백종원 클라쓰

〈백종원 클라쓰〉는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 역할을 해왔던 한식 마스터 백종원과 뛰어난 요리 솜씨에다 탁월한 영어 실력까지 갖춘 가수 성시경이 외국인 패널들에게 한식의 기본기를 가르쳐 전 세계인들에게 K-FOOD의 매력을 알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28일 첫 방송에서는 6인의 글로벌 한식 새내기들에게 잔치국수의 요리법을 알려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백종원과 능숙한 언어능력을 통해 안정된 진행 능력을 선보인 성시경이 토크와 요리 사이 균형을 잡으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백종원 클라쓰〉는 앞으로도 국내 시청자들은 물론 외국인, 해외동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백종원표 한식'을 통해 새로운 요리 예능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KBS2

KBS, 충남-충남대-공주대와 미디어교육 업무협약 체결



KBS와 충청남도,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가 지난 22일 본사 본관 임원회의실에서 양승동 사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기수 충남대 부총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방송국 설립 추진과 연계한 미디어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앞으로 내포 신도시 내 2만 9백여 ㎡의 부지를 활용해 지역 대학교 미디어 관련 학과 학생들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디어센터와 방송시설 건립에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춘천총국, 설악문화유산 기록보존 업무협약 체결



춘천방송총국은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지난 16일 춘천총국 대회의실에서 신춘범 춘천방송총국장과 최상기 인제군수, 김철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악문화유산 기록과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인제군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학술적 자료를 발굴하고, KBS는 설악산 문화유산의 기록과 보존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설악산 일대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명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게 된다.

대전총국, 지역총국 최초 UHD 송출



대전방송총국이 6월 15일부터 자체 구축한 UHD 송출 시스템을 통해 지역 시청자에게 고품질 로컬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대전총국은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UHD 6.25 특별기획 골령골 묻혀버린 진실〉 1,2부를 방송했고, 오는 14일에는 개국 특집 UHD 다큐 〈지상의 별(가제)〉을 선보이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KBS-서울시-FEK,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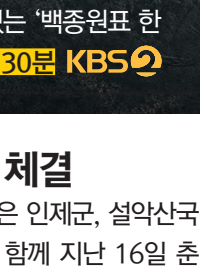
KBS와 서울시, 포뮬러이코리아(FEK)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양승동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문재식 FEK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전기차경주대회(SEOUL E-PRIX 2022)와 서울관광축제(SEOUL FESTA 202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S는 두 행사의 중계와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봉순과 함께 하는 '맛 기행 멋 기행'

잔잔하지만 칼칼하고~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새뱅이 찌개

〈고봉순과 함께 하는 '맛 기행 멋 기행'〉 세 번째 순서. 이번 사보에서는 청주방송총국 총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토박이 박남준 사우가 1년여 동안의 청주 생활에서 찾아낸 '맛집'을 공개한다.

※ 사원 여러분이 직접 소개하는 '맛집'과 '명소'를 기다립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전국의 숨겨진 '맛집'이나 가볼만한 '명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취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 : kbssabo@kbs.co.kr


청주방송총국 박남준

돼지고기가 푸짐한 '짜글이'도 맛있지만…….

"청주만의 특별한 음식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 어~" 하다가 "짜글이? 삼겹살?" 커피숍이 많으니 "커피와 디저트?" 솔직히 고백하면 타지 사람들에게 "청주하면 바로 이 음식이지"라고 망설임 없이 내세울 만한 음식은 없는 편이다.

부임 후 첫 점심 식사 때였다. "청주에 처음 왔으니 짜글이부터 시작해야지~"라며 추천을 받았을 정도로 '짜글이'는 청주에서 유명하기는 하다. 하지만, 짜글이는 서울에서 먹던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다소 비슷한 느낌이랄까?

1급수 민물새우로 끓인 충청북도의 소울푸드 '새뱅이찌개'

1년이 지난 지금, 외지인의 눈으로 본 청주만의 특별한 음식은 '새뱅이찌개'다. 새뱅이는 민물새우를 부르는 충청도 방언이다.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민물새우는 흑갈색에 길이가 2~3cm이며 주로 충북지역에서 많이 잡힌다.

새뱅이찌개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새뱅이와 달콤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무의 식감이 조화롭고, 쫄깃한 수제비를 곁들이면 든든하면서도 얼큰·시원한 맛을 보여준다. 청주의 여러 식당에서 '새뱅이찌개'를 먹을 수 있지만 경험상 이곳 '경희식당' 만한 곳은 없었던 것 같다.

혹시 청주에 들리시게 되면 잔잔하지만 칼칼하고,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맛, '새뱅이찌개'를 맛보시라고 자신 있게 추천 드린다.


새뱅이찌개

경희식당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15번길 31-2
◉전 화 : 043-257-0452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양승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828, 2821 / kbssabo@kbs.co.kr
편집인 이경호 **취재** 안현기 기현정 나은정 최재영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박수연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